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2월 10일

CUOMO 주지사, 뉴욕주 세금경감위원회 최종 보고서 수락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세금경감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공동의장들인 전 주지사 George Pataki와 뉴욕주립대학교 이사회 의장이자 전 주 감사관인 H. Carl McCall로부터 받았습니다. 3년간의 건전 재정과 책임 예산에 의해 가능해졌기 때문에 Cuomo 지사는 뉴욕주의 주택 소유자 및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의 재산세와 영업세를 줄일 방법을 파악하는 임무를 이 위원회에 맡겼습니다.

위원회의 권고안은 뉴욕주의 주택 소유자 및 기업을 위해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의 경제적 경쟁력을 증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세금 경감 이외에 위원회는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지방 정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도 권고합니다. 기타 권고에는 법인세율을 46년래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북부 뉴욕주 제조업체들의 세율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며; 뉴욕주의 상속세를 다른 주들과 보조를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3개년의 재정 건전성 및 책임 예산으로 뉴욕주가 주민들의 세금을 경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검토할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최종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는 웹사이트: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commission_report.pdf.

“너무 오랫동안 재산세는 뉴욕주 주택 소유주와 사업체들에게 가혹한 부담이 되어 일자리 성장을 저해하고 개인과 가족들을 주 바깥으로 내몰았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지난 3년에 걸쳐 우리는 모든 뉴욕커들을 위해 세금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진전을 이룩하였지만 이 위원회는 우리의 책임 예산과 재정 개혁으로 생긴 20억 달러의 잉여금을 활용하여 뉴욕주 납세자들을 위한 추가적 삭감을 제안하였습니다. 본인은 의회와 협력하여 이 권고안을 검토하고 세금 수도라는 주의 평판을 뒤집어 뉴욕주를 가족과 기업에 더욱 친화적인 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하기 원합니다.”

이 위원회의 세금 경감 권고는 주정부 지출 증가율을 2%로 억제하고, Medicaid 및 교육 지출에서 예산 자동 팽창 종식, 납세자들에게 수 백억 달러를 절약시켜 줄 연금 개혁 및 주정부 노동력 삭감을 포함한 3년간의 책임 예산을 토대로 합니다.

Korean

전 주지사 Patak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우리에게 부동산세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청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여 중산층 납세자와 특히 고정 소득 납세자들에게 진정한 세금 경감이 될 견실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또한 절실히 필요한 상속세, 영업세 및 에너지세의 개혁도 권고하여 PIT 최고 세율이 계획된 대로 단계적으로 폐지되게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권고안을 오늘 전달하기 위해 시간외 근무도 하였는데 본인은 우리가 수립한 권고안이 자랑스럽습니다.”

의장 H. Carl McCa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당파적 차이를 내려놓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위원들은 주지사의 당부와 그의 협조적 태도를 포용하여 20억 달러의 잉여금을 도출한 3년간의 건전 재정 예산에 의해 가능해진 대담한 권고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옛날 Albany라면 이 돈을 소비했겠지만 Cuomo 지사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그것을 주인, 즉, 납세자의 포켓에 돌려줄 것입니다.”

위원회가 내놓은 주요 권고안은 뉴욕주에서는 재산세가 여전히 개인, 가족 및 기업이 당면한 가장 부담스런 세금으로서 경제 성장의 큰 걸림돌이라는 소견에 근거합니다. 뉴욕거들은 절대 조건에서 측정하든 주택가의 백분율로서든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 고지서에 계속 직면합니다. 위원회는 20억 달러 세입 풀 중에서 10억 달러를 이용하여 주택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더 줄이고 지자체 수준에서의 비용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재산세를 2년간 동결할 프로그램의 수립을 권고합니다. 동결 첫 해에는 재산세 상한 내에 머무는 로컬 예산을 채택하는 조세관할권의 모든 적격 주택 소유주들은 자신의 재산세 성장에 상당하는 주 세액 공제를 받을 것입니다. 2차 연도에는 재산세 상한 내에 머물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조세관할권과 서비스를 공유하거나 통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관할권 내에 사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동결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세를 동결하고 상한을 정하는 프로그램들이 부동산세 부담 증가를 억제할 수 있지만 현재의 재산세 수준으로도 이미 부담이 과한 납세자들에게 경감을 제공할 필요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개별 주택 소유주의 납세 능력에 근거한 부동산세 경감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주정부가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뉴욕주를 경쟁력있게 만들기 위한 기업을 위한 세율 인하

뉴욕주의 경제적 경쟁력, 투자 및 부가 성장을 부추기기 위해 위원회는 기업을 위한 세율 인하와 세금 구조 단순화를 권고합니다. 여기에는 주의 기본 법인소득세의 개혁 및 간소화와 함께 법인소득세율을 1968년 이래 가장 낮은 6.5%로 인하할 것이 포함됩니다. 북부 뉴욕주 제조업체들의 세율이 사상 최저인 2.5%로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체 재산세를 주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통해 20% 삭감하라는 위원회 권고로 인해 모든 제조업체들이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확장을 더욱 조장하기 위해 위원회는 2018년에 폐지될 예정인 임시 유틸리티 사정(18-a)을 산업 고객을 위해 2014년에 폐지할 것을 권고하며 기타 모든 고객도 추가 요금의 단계적 폐지가 가속화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모두 투자 및 일자리 성장에서 현재의 세제에 존재하는 잔여 장벽과 씨름할 것입니다.

상속세 개혁

위원회는 상속세를 개혁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뉴욕주는 상속세가 있는 17개주 중 하나인데, 현재 2개 주만 더 낮은 면제를 해줍니다. 상속세 과세 최저한이 주택가 상승과 보조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중간 소득 뉴욕커들이 상속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주의 과세 최저한을 525만 달러로 높이고, 인플레이에 연동시키며, 세율을 낮추는 상속세 개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회는 소액 소비세를 폐지함으로써 뉴욕주 세제 구조를 단순화하라는 세계 개혁 공정성 위원회의 제안 대다수를 지지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